말씀제목: 근본치유
말씀구절: 창3:15-21

들어가는 말씀
초등부 아이들이9명 밖에 안된다는 것은 충격이다.
어떻게 하면 30-40대 젊은층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것인가 왔다면 그들이 어덯게 해야 정착이 될것인지가 기도제목이다.
한국교회에도 난리가 났다고 할정도로 주일학교가 죽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는 살아난다. 그런것을 보고 내 나름대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떤 시간표를 기다린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라. 교회에 어떤 변화가 와야 하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교회만 아니다. 미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한국 사람은 아무리 해도 마이너리티이다. 이것이 틀린것은 아니다. 유대인도 그렇다. 제자들이 그렇게 다 나왔다.
메이저리티로 가지 않고 작은 숫자가 영향을 주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싹다 망하고 있다.

우리는 다민족 복음화를 30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한발짝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런 영상을 자주 본다.

다른 교회는 뭔가 다른게 있다. 이것이 포인트이다.
바꿔야 한다. 옛날에는 세상에 맞추어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할때는 상당한 거부감이있었다.
우리는 바뀌면 안된다. 언약인데,,, 그런데 내용을 바꾸는게 아니고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며칠전에 류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문화를 정복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왔다. 그것을 듣고 정리를 했다.

내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 이 문화라는 단어가 뭐냐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다.
전도에 맞추어서 내게 주신 단어로 정리를 했다.
문화라는 것은 접근하는 방법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것이 문화이다.
자연부르는 방법이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안되는 무슨 방법이다.
그것을 문화라는 단어에 넣었다.
또 다른 표현은 오게 하는 길이다.
오늘도 나왔다.
초창기에 어떤 권사님이 불교대장이라고 하였다.
누구를 따라와 다락방에 참여하고 영접을 했다. 다른 간증을 들어보면 욕쟁이 할머니라고 다음주부터 교회 안나오면 너희 이혼하라고 하니까 싹다 몰아서 왔다고 하더라. 오늘 이분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두마디로 했다. 국수를 삶아서 먹으러 오라고, 어쩔때는 옥수수 삶았으니 먹으러 오라고...
옛날에는 제가 이런 생각도 했다. 조금 유치하다 깨끗하게 복음전하고 말지 하나님의 계획된 곳에 가서 복음전해야지 사도바울이 국수 삶아주었냐? 라고생각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하기를 네가 사도바울이냐? 사도바울은 그렇게 불렀지, 사도바울이 사용한 전도의 방법이있다. 네는 사도바울이 아니지... 안 맞는가? 그래 국수 삶아서 복음전하는데 잘못되었는가? 인본주의인가? 그래서 그날 정리하면서 보니 우리는 지금 복음만 말했다. 다른것 생각도 안해 다른것 방법 수단은 인본주의 같으니 안해 오직 복음!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지나면서 복음은 처음부터 내놓을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내놓을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 끝까지 복음 해서 안되면 그냥 지나친다.
성경적인데, 문화를 놓쳤다. 문화도 성경적이다. 복음만 성경적이 아니다.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두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에 그리고 있는것들이 있다.
오늘 유초등부에 성경암송은 아주 잘하고 있는것 같다. 중고등부에서도 계속해야할 내용이다.
조부모들 모여서 기도하는것은 아주 잘하는것이다.
지속해서 유초등부가 부흥하기를 바란다.
제가 조금 작년 재작년에 내 딴에는 마음을 가지고 이은철목사에게 말하고 전 부장에게도 이야기 했다.
부모 모임을 지속을 하라고, 부장하게 몇번 이야기 하면 지속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얘기 한것도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하고 부모 모임을 할때 초청을 할때 오는 부모와 아이들을 올때 전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재작년에 이야기 했다.
열심히 했겠으나 그렇게 열매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생각이 뭐냐면 결국은 개인이 복음 누리는것과 전도훈련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한다.
그런것이 되지 아니하면 국수 삶았으니 오라는 아이디어도 안나온다. 저 자신도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전에 뭔가 생각이 고착이 되어있었다.
자유롭게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문화 사상인데 복음, 훈련,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된다. 결국 이것이 되어있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 문화를 통하여 전도자가 되어있다.
복음훈련메시지만 했지 이것을 무엇을 타고 들어갈까는 머리에 안들어간것이다. 사단역사가 아닌가 싶다.
머리가 얼어버렸다. 나는 그런생각이 들었다. 훈련을 받을때 어떻게 이지역을 파고 들을것인가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오래되었다.
그게 내 머리속에 들어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한개도 안들어 왔다. 그런데 다락방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안들어왔기에 내가 이 다락방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지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것이다. 하고 있으다 하고 있다 훈련받은데로 메시지 받은데로 내 생각에 하는 단어가 생각이 고착이 되어서 응용이 안된다.

앞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 적게 낫고 떠나는것이 강력한 메시지인데 아직도 네가 다민족에 눈이 안열렸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역사에 그대로 있었다. 유대인 역사중에 이방인들에게 간 사람들은 시대적은 쓰임받았지만 이것은 우리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망한것이다.

말씀제목: 근본치유
말씀구절: 창3:15-21

진짜 응답받기를 바란다. 지금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응답받기를 바란다. 집에서 하는 분도 소중한데 가능하면 교회와서 하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된다 안된다 하지만 사람이 교회로 많이 오면 은혜가 되는것이다. 줌을 통해서 선교지역에 메시지 나누고 진짜로 좋다.
로칼교회 모임에는 치명타이다.

서론 – 기도시간에 먼저 할것이 있다.
1. 먼저 할것
1) 언약잡고 기도해야 한다. 약속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다. 감사한것은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너무나 감사하다. 진실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2) 진실한 기도, 아주 좋은기도가 아니고 마음에 담긴기도 깊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앞에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3) 영적전쟁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냐 간단하다 그릿도 이름을 고백하면 영적전쟁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뱀의 머리가 반드시 깨진다. 저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고백을 할때 가장 은혜가 된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겠는가?
본론
1. 근본치유-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1) 창3:15 여자의 후손으로 근본치유해야 한다.
2) 근본문제 -하나님떠남, 죄, 사단문제 이다.
3) 우리안에 사단과 원죄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여기에서 인생 모든문제의 답이 나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4) 해방을 누리고 정복을 누리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약속이고 축복이다.

2. 누림치유되어야 한다. – 잘 안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기도하면 감사하고 행복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문제 해결이다. 우리가777기도가 진짜 누려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잡혀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여하튼 성경에는 24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들이 근본에 자리잡고 있는것을 우리도 잡아야 한다.
1) 창3:21 약속의 피를 계속 고백하는것이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성경전체에서 항상 정복하고 승리하였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지금 그리스도 보혈을 계속 고백해야 한다. 대신 당하셨으니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것이다. 박살을 낸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2) 깊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 24가 되고 777되면 두말할것이 없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번씩 진심으로 하나님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을 받는다. 은혜된다. 힘난다.
3) 지속하면 응답 오게 되있다. 응답없이는 우리가 눈 안열린다. 이 응답을 통해서 다시한번 더 누린다. 그리고 응답은 누림에 대한 확인이다 이 누림을 응답보다더 더 한차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4) 도전이다. 내가 정말로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언약잡고 도전한다 더큰 은혜를 받는다. 누림인데 누림이상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기를 바란다.

3. 그 어떤것보다도 치유는 내 개인 치유가 중요하다. 내가 응답을 받지 않고는 지속도 안되고 힘이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게 응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개인치유내지는 개인 응답의 약속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1)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라
2) 이것을 계속 고백하라 – 이것이 응답과 치유에 대한 약속이다. 고백하면 은혜받고 평화가 온다. 말씀을 고백해보시라 평안이 온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로 이야기를 해보라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으나 어느때 깊은 은혜가 온다. 만약 영적문제 있는 사람은 이것만 해도 영적문제 다 나간다. 내가 영적문제때문에 경제문제가 왔다면 경제문제응답이 와야 다 나았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영적문제가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된다.
평안이 와버리면 된다. 그러면 순간으로 나아버린다. 제가 과거에 불안중에 있을때 순간 영적인 것으로 평안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때는 제가 신앙도 자리를 못잡고 교회를 다니는 중이었고 나름 기도하는 중이었기에 평안이 자리잡히지 않았다 믿음도 왔다갔다 하는 시절이었기에, 그리하고 있는데 순간 0.1초사이로 평안이 오는경우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하루 내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기도했다. 잘은 몰라도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마음은 좀 안다. 딱 영적인것만 있다면 딱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여하튼 필요없고 될때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구절을 고백하거나 쓰거나 하면 한순간 평안으로 오면 그냥 치유된다.
3)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영적인 치유에 대한 답만이 아니고 다른것 육신적인것에 대하여도 응답의 조건이다. 구약시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다.
4)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이것 가지고 증인이 된다면 여기서 작품이 나온다. 물론 지속이 되어야 한다. 저는 남미에서 은혜를 주신것이 내 평생에 축복이다. 저는 끝까지 내 생명을 거기에 드릴 생각도 있다. 여하튼 내가 이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교회는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다 물론 교회는 당연하다. 그런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고 하나님계획대로 되기에 그것따라 작품으로 되는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복하고 초월하게 된다. 초월을 했다는것은 다른말로 무슨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것이다. 이때 느끼는것은 해방이다. 해방이고 정복이고, 이렇게 되는것이다. 출발이 여기이다. 그리스도언약, 다시한번 마음에 담고 되어져있는분은계속하면 된다. 어느날 777 가고 24도 되고 이것이 안되는데 24를 바로 주시겠는가 말이 안된다.
은혜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결론 – 시간표가 있다.
1. 시간표가 있기에 내마음대로 안되기에 지속해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것이다. 그때가 오기를 기도하는것이다. 그리고
2. 중요한것 또하나가 말씀인도 – 예배를 예사로 드리면 안되는것이다. 올해 우리 마음에 다음 단어중에 예배가 있다 예사로 드리면 안되고 건성으로라도 기도하고 오늘도
3.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메시지 들으면 항상 맨날 강조하는게 기도이다. 자기가 체험하니까 그런것이다. 오늘도 산업선교회때 메시지중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염려가 없었다. 왜냐면 기도를 알았으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자기 개인의 고백이다. 체험하지 않고는 이런 단어를 쓸수 없다. 결과적으로 나는 염려가 안된다. 내 안에 나는 염려가 안된다. 왜냐면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나는 지속을 한다 24가 된다. 왜나면 기도하면 된다는것을 아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도하면된다. 그 사람들은 아마 염려가 없엇을 것이다. 나도 그런데 요셉은 알고 갔다. 누가 아냐? 내가 누려보니 그렇더라. 요셉정도 되면 분명히 알고 갔을것이다. 안왔기때문에 무슨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것이다. 내가 요셉보다 많이 모자란데도 나도 그런데 그게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다락방을 하거나 어디가서 메시지를 하거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만큼 절대 그 이상 소리를 못한다. 들통나기에 그렇다. 사역을 하는 분인데 자기가 조금 위에것을 말하고 되는것 처럼 말했다 하면 앉아서 메시지 듣고 있는 사람은 금방 눈치 채버린다 아니다.! 그런데 레벨이라면 이상하지만

그 사역자보다더 훨씬 낮은 분이 나와서 자는 진짜 안된다하면서,,, 속에 있는것 고백을 하며 나는 진짜 안된다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은혜를 받는다. 지한테 되는만큼만 이야기 하니까 그런것이다. 오늘도 깊은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진짜 응답받기를 바란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메시지 듣고 끝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가능하면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자기도 옆에사람도 은혜받는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기도만 따지는것이 아니고 행한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셨다. 싫을때도 있을것이다. 한 사람은 한것이고 안한사람은 안한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돌리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주셨으니 우리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근본이 치유되게 하옵소서.